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0호 [루계 제2213호]

주제 102  
(2013). 3

2  
토요일

음력 1. 21

6. 15 공동선언의 가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를 관람하시고 미국 NBA 이전 선수와 일행을 만나시였다

미국 NBA(전국농구협회)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과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 할렘 글로브트로터즈농구팀 선수들과 조선체육대학 해불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가 2월 28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시기 위해 나오시였다.

순간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신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렸다.

미국 NBA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주석단판람석에 올라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옆자리를 권하시였다.

또한 미국 할렘 글로브트로터즈농구팀 상급부회장 브레트 데니스 메이스터와 최고운영자 제프레이 라이몬드 문도 주석단판람석에 올라와 앉았다.

미국농구선수들이 먼저 모범출연을 하여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

관람열기가 높아가는 속에 우리 선수들과 미국선수들의 혼합경기가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시종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1, 2회전에서는 홍팀 선수들이 먼저 던져넣기, 꽂아넣기, 판공에 의한 둔밀성공 등으로 득점률을 높이며 기세를 올려 상대팀을 60 : 47로 이겼다.

휴식시간들에 너성취주악단이 경쾌한 주악을 울리며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펼쳤다.

녀성예술인들의 민족춤과 태권도시범 동작들은 관람자들의 홍في를 돋구었다.

3, 4회전에 들어와서도 홍팀은 적극적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속공과 면거리공격을 배합하여 련속 점수를 올렸다.

우리 선수들은 평시에 훈련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같은 팀에 속한 미국 선수들과의 보조를 잘 맞추면서 경기를 능란하게 운영해나갔다.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백팀 선수

들은 철저한 대인방어와 속공으로 형세를 전환시켜 결국 경기는 110 : 110으로 비긴 가운데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런던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격동된 심정을 안고 마이크를 잡은 데니스 로드맨은 잊을 수 없는 이번 평양방문은 매우 만족스러우며 더없는 특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를 드리였다.

평양시민들과 한데 어울릴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긴다. 미국과 조선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한것은 유감스럽지만 조선인민은 친구이며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친근한 벗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데니스 로드맨 일행은 할렘 글로브트로터즈농구팀 선수복장을 기념으로 올리였다.

서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조선 두 나라사이의 체육교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와 일행을 따뜻이 환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금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였다.

만찬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삼천리  
강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통일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이  
고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해전  
3월 분별의 한이 서려있는 판문  
점을 찾으신 것은 우리 겨레의 조  
국통일위업수행에서 사변적의의  
를 가지는 역사적 장거였다.

돌이켜 보면 두 해 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예  
상하게 서거하신 것은 공화국인  
민들은 물론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통한  
상실의 아픔이었다. 한평생 민  
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6.15의 거치밀에 온 겨레를  
묶어세우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  
이시었다. 하기에 온 겨레가 그  
이를 민족의 찬란한 태양, 조  
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고 밟  
들어모시었으며 자주통일의 그  
날을 확신하며 신심과 용기에 넘  
쳐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에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였으니  
겨레가 훌리는 피눈물이 강산을  
뜨겁게 적시고 통일의 앞길을 이  
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  
는 걱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동포  
들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사업을 령도

#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전해질 뜻깊은 사변

하시느라 그처럼 바쁘  
시고 찾으셔야 할 곳  
도 많았지만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민족분별의 상징이며 통일을 바라는 겨  
레의 마음이 달려오는 판문점, 이곳은  
지난 기간 북파 남, 해외의 동포들과 단  
체들이 모여 성대한 통일행사를 진행하고  
통일의 열기로 가슴을 뜨겁게 달구던  
잊지 못할 곳이다.

바로 이런 판문점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찰하신 것은 민족분별을 그 누구보다 가  
슴아파하시며 하루빨리 겨레의 통일숙원을  
풀어주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  
한 통일의 의지의 발현이였다.

이 숭고한 화폭을

신문과 TV로 접한 우

리 겨레는 저마다

뜨거운 격정을 삶기

였고 절세위인이 계

서 자주통일의 그날

은 반드시 오리라는 기대와 확

신을 더욱 굳게 되었

다. 반면에 대결과 분별을 추구



판문점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1(2012)년 3월

하는 반통일세력들은 공포와 전  
률을 금치 못하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

국통일실현에 온갖 로고와 심혈

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들의 거  
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

룩한 생애와 쌓으신 불멸의 업

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언명하신

적을 감회깊이 돌아보시였다.

원수님.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  
국이고 조국분별은 곧 배국이라  
고 하시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  
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  
구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  
의의 투쟁에 파감히 펼쳐나서야  
한다고 하시며 온 겨레를 거족  
적인 통일대행진으로 불러주시  
였다.

온 겨레와 세계가 커다란 관심  
과 기대속에 접한 올해의 혁사적  
인 신년사에서도 원수님께서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온 민족  
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대행  
진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  
면을 열어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  
도들도 제시하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은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처럼 민족을 제일로 사  
랑하시고 통일을 위해 모든 것  
을 다 바쳐 가시는 민족의 어버이  
이시고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입니다.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  
훈을 받아들여 기어이 조국통일  
을 성취하여 겨레에게 하나된  
조국을 물려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와 비  
범한 령도에서 북파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과 민  
족의 밝은 희망을 확신하고 있  
으며 신심과 용기에 넘쳐 너  
도나도 통일대진군에 펼쳐나서  
고 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 그날은 봄날이였다

리 송 일

세월이 봄날을 안고와도  
봄이 깃들지 못하는 땅  
종다리를 지져귀며 날아예고  
온갖 꽃들 만발하여도  
랭기만이 감도는 최전방 판문점

여기로 오시였어라  
한해전 3월 어느날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 오시자  
하늘에서 태양이 내린듯  
환희로 설레이던 판문점이여  
못짐승들조차 오도가도 못하게  
독을 쓰며 길을 막던 가시철조망들  
령장의 기상에 녹아버리는듯  
대결의 마파람에 시달리던 초목들은  
그이 미소로 봄날을 맞는듯...

걸음걸음 찬란한 빛 뿌리시며  
그이는 다가서시였어라  
판문점 한복판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앞에

가슴 허비는 민족분별의 비극  
이 땅에서 하루빨리 가셔버리시고  
후대들에게 통일조국을 물려주시려  
한생토록 애쓰시던 수령님 료고  
자자구구 친필에 다 어린듯

그이는 숙연히 우러르시였다  
《김일성》  
1994. 7. 7.》

그 글발너머 그이 마음에  
뜨겁게 달음쳐오던 세월이여  
그것은 수령님 한평생의 세월만이였  
던가

말해다오, 너 판문점이여  
수령님의 뜻 안으시고  
장군님 걸으시던 통일장정의 그길  
년년 열두달 찬서리만 불리던 이 땅에  
봄을 불러오던 그 자우자옥을

그이 심정 절절하셨으리  
수령님의 통일유훈 이루시려  
열일곱해전 마가을 어느날  
풍랑에 젖은 옷 그대로  
여기 서시였던 장군님 생각에

조국통일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장군님 마음에  
얼마나 통일이 간절했으면  
파도세찬 초도길 다녀오신 그 밤  
쉬지도 못하시고  
이른새벽 판문점으로 달리셨으랴

다 걸어보시는듯  
남녘겨레들 다 만나보시는듯...

북침전쟁연습에 열이 오른 침략자들  
불이 번쩍이는 안광으로  
굽어보시며, 한줌에 거머쥐시며  
그이는 필승의 통일의지 다지셨거니

사랑하는 조국강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침략의 무리를 감히 건드린다면  
백두산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단호한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원수님들의 유훈  
우리 민족의 숙원 이룩하리라

오, 애국애족의 활화산같은  
원수님의 그 의지  
남녘으로 해살마냥 비껴가던 그날  
온 겨레는 보았어라  
이 강토 이 민족의 분력을 끌끌내실  
위대한 백두산장군을

그날의 그 의지 그 뜻을 안으시고  
서부전선으로, 동부전선으로  
장재도로, 무도로...  
천리전선을 주름잡으시며  
그이는 반통일분자들에게 선언하셨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그이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조선의 존엄 민족의 자랑인  
《광명성-3》호 2호기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적대세력의 도전 짓뭉개며  
제3차 지하핵시험이 지구를 뒤흔들었다

그 격정에 가슴 들먹이며  
이 3월 여기 판문점에 서니  
그날의 그이 숭엄하신 모습  
삼천리 하늘가에 찬연히 비껴있어

보여와라, 들려와라  
눈보라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태양은 봄날을 펼치듯  
민족의 구성 김정은원수님  
삼천리에 안아오실  
통일조국의 만세소리가

아, 통일의 봄을 안으시고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  
판문점에 오셨던 혁사의 날  
그날은 봄날이였다  
삼천리 강로 7천만가슴에  
통일해발 뜨겁던 봄날이였다!



판문점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비

지난해 3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  
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시찰하시면  
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봄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반드시 성  
취하길 철석의 의지를 전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  
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봄원이고  
유물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  
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  
한 과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  
라의 분열이 이제는 70년을 가까이하고있기때  
문이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비극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나라의 분열로 우리 민  
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한두마디의 말이  
나 글로써 표현할수 없다.

분별로 하여 우리 겨레는 민족의 통일적발  
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북파 남으로 흘어  
진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서로의 생사여부조  
차 모른채 갈라져 살고있다. 조국이 해방되던  
날 태어난 《해방동이》들의 머리에는 흰서리  
가 젖게 드리워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민족  
분열의 아픔을 절감하게 하고있다.

반민년의 유구한 혁사와 찬란한 문화, 단일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통일  
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조국통일이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  
박한 과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통일에 우리  
민족의 살길이 있고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겨레는 이것을 지나온 6.15시대를 통  
하여 폐부로 절감했다.

6.15의 열풍이 온 삼천리에 굽이치던 그  
나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장들마다에서 북파 남  
의 우리 겨레가 열싸안고 《우리는 하나!》,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함성을

목놓아 웨친것은 무엇때문인가.

여러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북파 남의 선  
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하고 백두  
산과 한나산에서 재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해불  
로 오를 때 우리 겨레가 그토록 격정과 눈물  
에 젖은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우리 민족이 피줄도, 언어도, 문화  
도, 혁사도 하나이기때문이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  
체와 같다.

조국통일은 이렇듯 우리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나라의 통일적발전  
도 조국통일에 있고 이 땅의 평화도 통일의 길  
에서 온다.

하나된 통일조국은 존엄높고 힘있는 나라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 것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봄원이고 유물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  
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  
슴아파하시며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이른새벽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고 건설장  
의 밤길을 걸으시어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언제  
나 퍼를 나눈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고 통일문  
제때문에 마음씨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온 겨레를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조  
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신 대원수님들에 의해  
우리 겨레는 통일의 대원장인 조국통일3대  
현장도 받아안고 6.15, 10.4선언도 세상에 울  
려펴쳤으며 가슴벅찬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  
가 펼쳐질수 있었다. 참으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은 하늘에 닿고  
영원히 빛을 뿐될것이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  
를 높이 받들고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을 기어  
이 현실로 꽂아우기 위한 거족적인 조국통일대  
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삼천리강  
토우에 하나된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야 할것이다.

조광혁

# 통쾌한 승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내외의 항의와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도한 북침선제공격연습을 끌끌내 강행하였다. 이것은 가뜩이나 침에 관한 정체를 더욱 긴장시켜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며 임의의 시각에 북침선제공격으로 넘어가기 위한 핵시합전쟁이고 예비전쟁이다.

그러나 적대세력이 아무리 핵포함을 끌어들이고 핵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든다고 해도 눈썹 하나 까딱할 우리 공화국이 아니며 승리는 언제나 우리 공화국의 것이다. 이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비참한 과정의 운명은 불을 지른자들에게, 통쾌한 승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불을 즐기는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 단호히 징벌하려는 공화국 군대의 서리발 같은 기상과 원쑤격멸의 의지, 최후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

요즘에도 TV에서는 모란봉 악단의 인상적인 꼬목들이 자주 방영되고 있다. 들을수록 힘과 용기가 솟아오르고 땅만과 흙을 주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에서도 특히 이채를 띠고 사람들이 감정세계에 깊이 끌려들게 하는 것이 노래 «승리자들»이다.

이 노래는 며칠전 경에 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전진된 공화국가 합창단 공연에서도 판현악과 남성합창으로 울리여 관람자들의 절찬과 재청을 받았다.

그대는 승리 위해 애끓은 가슴으로  
불뿜는 적화점을 몸으로  
덮었고  
그대는 승리 위해 웃으며  
땅크밀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승리 승리를 위해 한목숨  
다 바쳐 싸운  
영웅들의 그 위훈 영웅들의  
그 정신  
우리 이어가리라

노래의 가사 내용도 좋고 꼬도 나무랄데 없는 시대의 명곡이다.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박력

지금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국해방 전쟁승리기념관을 개건하는 건설이 한창이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도 전시되게 된다.

침략선 «셔먼» 호가 수장된 대동강기슭에 뮤이워 미국의 수치스러운 침략과 폐배의 혐리를 상기시켜 주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푸에블로» 호가 영웅적 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68년 1월이었다.

당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는 공화국의 영해에 깊숙이 들어와 비법적인 정탐활동을 여리차례나 벌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통제로 나포되는 운명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침략행위의 응당한 대가였다.

하지만 미국은 «보복», «선제 공격»을 떠들며 «엔터프라이즈» 호를 비롯한 3척의 핵추진 핵포함을 조선동해에 들어밀었고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전투기 360여대를 출격시켰다. 지어 «핵무기 불사»까지 떠들었다.

결과는 «미국합선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

의 반응이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수 없고 최후의 승리는 정의로운 인민의 것이다. 정의는 승리를 담보하는 최고의 과학이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은 언제나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공화국이

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공화국이 정의의 보루라면 미국은 불의의 대명사이고 세인이 중오하는 악의 제국이다. 아메리카원주민들의 피바다우에 솟아나고 침략과 살륙을 밤鼬듯 해온 미국은 자주와 정의의 나라인 우리 공화국을 시종일관 적

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는 힘을 가진 불의가 정의인 양 행세하며 정의를 매도하고 불공정한 질서를 다른 나라들에 미구 강요하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힘이 없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가슴아

## 세계는 보게 되리

력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면서도 시종일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바로 이 길이 인민의 존엄과 행복,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 정의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주는 곧 정의이고 예속을 강요하는 침략과 지배주의는 불의이다. 이번에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갖은 압력과 『제재』 책동에 맞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기어이 우주에 쏘울린 것도 바로 정의를 수호하고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

## 승리자들의 노래

있고 씩씩하게 고조되는 이 노래를 듣느라니 가볍처질한 전화의 나날 적파의 치렬한 싸움마당이 떠오르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던 승리의 혁사가 되어진다.

노래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조국의 혁사는 혁사의 온갖 광풍을 맞받아 헤치며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영웅적인 투쟁의 혁사, 장쾌한 승리의 혁사이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지 불과 두해도 못되어 미국의 강도적인 침공을 받았으나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한 사람같이 일떠나 싸움으로 써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 우두머리의 거만한 고대를 꺾어놓고 전승의 자랑스러운 축포를 쏴올리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맨손으로 페허가 된 도시와 마을, 공장을 빠른 시간에 다시 일떠세워 으로 써 『100년이 지나도 조선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흥얼거렸던 미국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남들이 한

세기, 지어 200년을 거치며 한 공업화의 혁사적과업 치인 지하핵시험도 범죄시하고 14년만에 수행한 조선이였고 『사회주의 종말』과 그 누구의 『봉피설』을 떠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혹심한 자연재해, 민족좌대의 국상을 당한 그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꽃이 지켜낸 것도 우리 혁사의 온갖 길만을 걸어온 영웅적인 투쟁의 혁사이다.

그러나 침략자들과의 전면 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일어난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의 얼굴들은 불안이 아니라 승리의 밝은 미소만이 떠돌고있다.

백두산장군이신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 세계가 못 가진 일십단계의 무기와 막강한 자위적군력, 혁혁재력도 있기에 누구나 마음이 든든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소리높이 웨치고 있다.

승리,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공화국의 것이다.

오늘의 줍엄한 전면대결전에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노래 『승리자들』을 더 높이 부르며 영웅적투쟁을 벌려 조선의 영광과 위력을 떨치고

전수호를 위한 실체적대응조치인 지하핵시험도 범죄시하면서 적대세력들이 몰아오는 침략전쟁의 불구름이 이 땅 삼천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의 포성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자들과의 전면 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일어난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의 얼굴들은 불안이 아니라 승리의 밝은 미소만이 떠돌고있다.

백두산장군이인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 세계가 못 가진 일십단계의 무기와 막강한 자위적군력, 혁혁재력도 있기에 누구나 마음이 든든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소리높이 웨치고 있다.

승리,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공화국의 것이다.

오늘의 줍엄한 전면대결전에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노래 『승리자들』을 더 높이 부르며 영웅적투쟁을 벌려 조선의 영광과 위력을 떨치고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번에 쳐부실 수 있는 공격능력과 방어 능력을 다 갖추고 핵무기도 보유한 자위의

최후승리의 축포가 아름다운 이 나라의 하늘에 찬연한 빛을 뿐리게 될 때 조선의 전승기념관의 『푸에블로』호 옆에 미국이 거듭되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면서 전쟁연습들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짓어대는 강아지를 그대로 련상시키고 있다.

지난 2월초부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을 끌끌내 벌리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조선인민군의 경고가 결코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났으나 대결과 전쟁판면에 사로잡힌 내외호전세력들은 아직도 연평도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반공화국적 대시암



지금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가장 숭고한 애국심을 따라به위 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창조와 혁명을 일으켜가고있다.

이러한 벅찬 현실을 반영한 애국주의 주제의 미술전시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중앙과 지방의 미술창작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판화,

# 애국의 열의 복동 아주 는 전시회

서예, 조각, 도자기, 수예, 연필화 등 7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면 중심부에 전시된 조선화 《해방된 조국산천을 더 푸르게 하시려》(평양미술대학 박광립작)가 한눈에 안겨온다.

이 작품은 공화국인민들이 이번 전시회에는 종양과 지방의 미술창작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판화,

김정일 장군님, 항일의 선령 속에서 1947년 4월 6일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혁신적 사실을 소재로 삼아 예술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다. 이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래 이 산은 비단에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문수봉이라고 불리웠는데 일제에 의하여 자기의 옛 모습을 잊

고 보기 흥한 벌거숭이 산으로 되어버렸다고 하시면서 산림자원을 잘 조성하는 것은 조국강토를 보호하고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교시하였다.

작품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가장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온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고 있다.

바람세찬 바다가 언덕에서 시여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한 유화 《대개도의 새 봉사를 펼쳐주시며》(만수대창작사 조광식, 공훈예술가 김유동작)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두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설레이게 하고 있다.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과학

자들의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CNC열풍》은 공화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에 당당히 올려세우려는 그들의 애국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의 자랑찬 전면을 보여주는 조선화 《불빛바다, 웃음바다》, 유화 《눈내리는 만수대거리아경》, 유화 《평양의 새 모습》, 판화 《통연의 저녁》 등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시회장에는 진주보석과

속공에 《만경대생가》, 도자기 《붓꽃유상감장식꽃병》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전시회는 김정일에 국주의 를 심장마다 간직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위훈을 펼쳐가고 있는 군대와 인민의 슬기와 기상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화 《선군과 원의 주인들》



유화 《6·1절》



도자기 《갈매기조각장식품》



조선화 《꽃 피는 거리》

## 고구려 시기의 산성 새로 발굴 고증

\*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고고학 강좌 남일룡 강좌장과의 대담 \*

기자: 최근 역사학계가 평양시 만경대구역 선내동에서 고구려 시기의 산성을 새로 발굴하였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교육, 박사 남일룡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남일룡: 유적은 대동강과 보통강의 합수목에서 약 800m 떨어져 있고 보통강에서 약 1000m 떨어진 서산의 92.6m되는 고지가 주봉으로 하는 그 동남쪽의 일정한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고구려 시기에 쌓은 성

벽과 성들을 찾아내어 성의 축성대를 새롭게 밝히였다.

그리하여 이 성이 고구려 시기에 수도 평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한 중요한 성이라 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다.

성의 모양은 장방형에 가깝고 서쪽은 서산출기로서 높으며 동쪽은 보통강과 가깝게 평지가 이루고 있어 전반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지세를 이루고 있다.

둘레가 약 2 170m인 서산성은 세 면이 산성선이고 서쪽 한면이 평지와 접하고 있는데 남쪽, 서쪽, 북쪽의 성벽과 바깥쪽은 전반적으로 경사가 매우 급하므로 방어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은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고구려 시기에 쌓은 성

벽과 성들을 찾았던 것이다.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롯한 역사학계는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 성의 위치와 규모, 형태, 성축조방식 등을 명백히 해명하였으며 특히